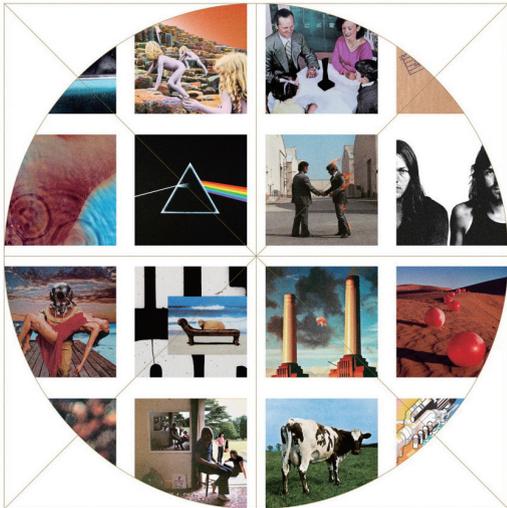


‘힙’한 아트워크 내면에 숨겨진 그들의 상처

영화 <힙노시스: LP 커버의 전설> 속 디자이너의 노동환경

글 편집실



<힙노시스: LP 커버의 전설>은 1960년대 오브리 파월과 스톰 소거슨이 창립한 영국의 디자인 그룹 힙노시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힙노시스’는 1968년 영국의 록 밴드인 핑크 플로이드의 정규 2집 ‘A Saucerful of Secrets(1968)’ 앨범 커버를 제작하며 이름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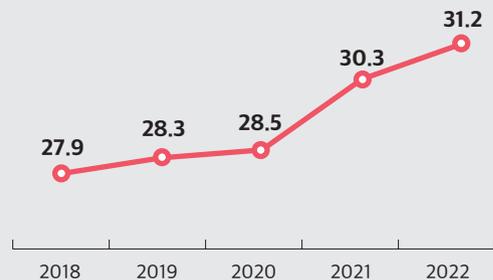
이후 힙노시스는 폴 매카트니, 레드 제플린, AC/DC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앨범 디자인을 도맡아 작업하며 LP 시대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특히, 검은색 바탕에 직선과 삼각형, 그리고 프리즘을 이용해 제작한 1973년 핑크 플로이드 정규 8집 ‘The Dark Side of the Moon(1973)’ 앨범 커버는 비틀즈의 애비로드와 함께 역대 최고의 LP 앨범 커버 아트워크로 꼽힌다. 힙노시스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당시 음반 시장에 반향을 일으켰고, 큰 무게가 실리지 않았던 LP 앨범 커버에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졌다.

두 디자이너의 작업방식은 무모하고도 기발했다. CG와 포토샵, AI가 없던 시대, 그들은 상상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사진과 이미지를 콜라주하고, 원하는 배경을 연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 어디든 발로 뛰어다녔다. 즉 힙노시스의 아트워크는 앨범 커버의 역사에 기념비적이었다. 사람의 몸에 실제로 불을 붙이며 제작한 핑크 플로이드의 정규 9집 ‘Wish You Were Here’(1975) 앨범 커버는 여전히 대중의 뇌리에 남아 있다. 후에 해당 작업물을 BTS가 ‘불타오르네’에서 오마주하며 국내에서 화제가 되었다.

‘힙스터’에게 숨겨진 신체적 고충

디자이너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또 대세를 이끄는 이른바 ‘힙스터’라 불린다. 힙노시스의 뜻 역시 멋지다는 의미의 ‘Hip’과 영적 인식이라는 의미의 ‘Gnosis’가 합쳐진 단어로, 자신들을 멋쟁이라 칭했다. 이러한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내면에는 아픈 현실을 감내해야 한다. 완벽한 결과를 위해 작업물을 계속 살피

디자인 산업 인력 규모 추이 (단위: 만 명)



*자료 : 한국디자인진흥원

는 직업상 눈 질환 개선은 시급하다. 특히 현황 디자인은 컴퓨터, 태블릿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하기에 더 위협적이다. 디지털기 화면에 집중할 때 눈의 깜빡임 횟수는 약 60% 이상 감소한다. 이 횟수가 줄어들면 눈물량이 적어져 시력 저하, 안구 건조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VDT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역시 디자이너에게서 자주 목격된다. VDT 증후군이란 장시간 자리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주로 발생하는 증상으로, 일명 '컴퓨터 질환'이라 불린다. 어깨 질환, 거북목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장시간 앉아 반복적인 동작과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근골격계질환 노출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요구도 거절하기 어려운 산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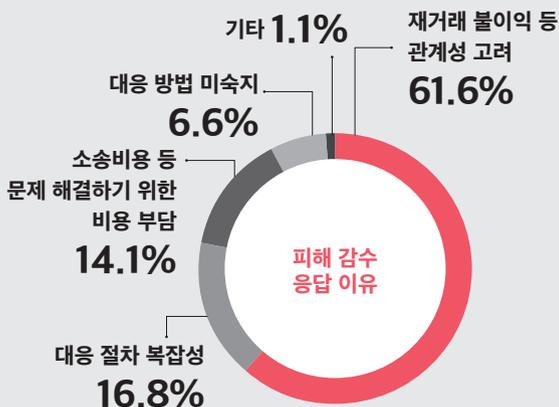
디자이너는 주로 기업·기관과 같은 단체 또는 개인 등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를 받아 작업한다. 디자인은 개인의 감성과 눈높이에 따라 같은 디자인이라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정답이 없는 업무다. 그만큼 요구사항이 까다롭거나, 원하는 만큼 시간 작업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마감 기한에 맞춰 작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야근·철야 근무가 잦아 업무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게다가 클라이언트와의 작업에서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받더라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디자인기업 공정거래 실태조사'에 의하면 디자인기업 5개 중 1개는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 규모는 1억 원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은 부족하다. 거래가 공정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감수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4.7%를 기록했다. 피해를 감수하는 이유는 재거래 불이익 등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시각으로 표현하는 시대다. 디자인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지금, 디자이너의 노동권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산업보건업계의 적극적인 관심 어린 시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2021년 디자인기업 용역 피해 실태

- 평균 피해 건수 **7.0건**
- 총피해 금액 **21,953,470,000원**
- 평균 피해 금액 **96,711,322원**



자료 : 한국디자인산업협회